

'금남로 조각상' 18점 15년만에 옮긴다는데 ...

시민 보행환경 불편 이유 내달까지 예술의 거리로 이전 작가들 "공간 협소해 줄세우기식... 관람 장애·파손 우려"

거리의 역사성이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고, 보행환경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은 '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각상 수십여 점이 15년 만에 이전·설치된다.

하지만 작가 의도나 작품이 갖는 의미와는 무관하게 비좁은 '예술의 거리'에 작품 수십 점을 몰아넣는 방식이어서 향후 관람 장애와 파손, 교통 불편 등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와 동구에 따르면 '문화전당권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금남공원 사거리 구간 인도 양쪽에 설치돼 있는 조각작품 20점 중 18점을 예술의 거리로 이전한다. 광주시 등은 이달 말 착공해 다음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작품은 광주시와 동구가 인권·역사의 거리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1년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이다. 설치 초기부터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가 갖는 장소성·정체성과 무관하고, 오히려 시민의 보행을 가로막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설치 이후에도 사실상 방치돼 왔다.

이 구간은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특히 조각 작품의 특성상 작품을 입체적으로 감상해야 하는데 설치 공간이 협소해 후면에서의 감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레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성에 참여한 한 작가는 "금남로 작품들은 작가가 본인의 의도와 거리의 분위기에 맞춰 저마다 의미를 담아 설치한 것인데, 이런 작품을 거리 한쪽에 줄세우기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작가들과 충분한 협의만 했어도 이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작가는 "작품들을 창고에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며 "공원 등으로 이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번영회와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전당권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금남로·충장로·중앙로 일원 3.3km 구간의 보도블록, 점자블록, 보행 장애물 등을 제거·정비하는 사업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와 동구가 '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각상 20점 중 18점을 '예술의 거리'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장소가 비좁아 관람권 장애, 교통 불편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전당권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블랙박스·CCTV에 딱 걸린 난폭·보복운전자들

광주서부·북부경찰, 60대·40대 불구속 입건

앞서가는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난폭·보복 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들이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변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영상이 찍히는 바람에 달미를 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급제동·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낮 12시15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무진대로 편도 5차선 도로(시정 방면)에서 자신이 불던 폴크스바겐 승용차로 A(43)씨의 카이런 승용차 앞에 3차례 급하게 끼어든 뒤 급제동을 반복한

혐의다. 김씨는 A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400m 가량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난폭운전으로 위협을 느낀 A씨는 곧바로 서부경찰서를 찾아가 범행 장면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건네고 피해를 신고했다.

앞서 20일 광주북부경찰도 앞선 차량이 천천히 가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난폭·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폭행)로 최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택배기사인 최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8분께 북구 양산동 한 거리에서 앞서가던 모님 차량을 뒤쫓아가 경적을 울리며 위협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이를 항의하려고 차에서 내린 모님 차량 운전자 B(30)씨를 들이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B씨가 좁은 골목에서 서행하다 멈춰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욕설과 손가락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어 B씨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물차를 촬영하려 하자 B씨를 향해 차량을 전진, 들이받으려고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경적만 울렸지 위협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최씨가 B씨를 들이받으려고 차량을 전진하는 영상을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경찰 불법 주정차 단속

광주경찰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1일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를 가장 시급한 '광주 교통문화 혁신과제'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광주지역 교통혼잡 비용은 연 9500억원에 달하며, 우리나라 전체 교통혼잡비용은 약 27조7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2.6% 규모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각 경찰서별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2~3곳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자치구와 협력해 주 1~2회 합동단속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2	해질녘	17:58
해질녘	18:21	달 뜨기	06:37

맑은 날이 어디로 숨었나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오는 지역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림	0/6	보성	흐림	-3/5
목포	흐림	-1/4	순천	흐림	0/7
여수	흐림	2/5	영광	흐림	-4/5
나주	흐림	-2/6	진도	흐리고가끔비	-2/5
완도	흐리고가끔비	0/5	진주	흐림	-3/5
구례	흐림	-3/6	군산	흐림	-3/5
강진	흐림	-2/5	남원	흐림	-2/4
해남	흐리고가끔비	-3/5	축산도	흐림	1/4
장성	흐림	-3/5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남동~남	0.5~1.0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남동~남	0.5~1.5
	앞바다	북동~동	0.5~1.0	남동~남	0.5~1.0
남해	앞바다(동)	북동~동	1.0~2.0	남동~남	1.0~2.0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생활지수

계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높음

◇돌매

	밀물	썰물
목포	01:50	07:10
	14:29	19:41
여수	09:15	02:49
	21:26	15:15

◇주간 날씨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	☀	☀	☀	☀	☀	☀
2/7	-3/5	-3/8	-2/7	-1/7	-1/7	-2/8

사기혐의 잠적 구의원에 꼬박꼬박 세비 지급

광산구의회 두달치 600만원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잠적한 구의원 <광주일보 1월29일자 6면>에게 지방의회가 수백만원의 세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본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잠적, 지난달 20~28일 열린 임시회에 불참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달 초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A의원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연락이 끊겨 기소종지 처분했다'는 통보문을 받고, A의원이 수사를 피해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광산구의회는 A의원에게 월정수당 190만732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300여만원을 지난달 20일과 지

난 19일 각각 A의원 계좌로 지급했다.

광산구의회 관계자는 "A의원이 계속 의정활동에 불참하더라도 지방자치법과 구의회 조례에 지급 제한 규정이 없어 의원을 유지하는 한 세비를 꼬박꼬박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지방의회와 국회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에게 연후대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은 물론 의원들 스스로 조례에 의정활동 불참 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거나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YMCA 이사장에

이계양 무진 일음학교장

광주YMCA 제41대 이사장에 이계양(57·사진) 무진 일음학교 교장이 선출됐다. 광주YMCA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이계양 제41대 이사장을 비롯한 2016년도 임원진을 새로 선출했다. 또 제1 부이사장에는 표경식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제2 부이사장에는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선

출됐다. 조선대 사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 신임 이사장은 하하문화센터 대표로 지역사회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무진 일음학교 교장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해왔다. 이 신임 이사장 취임식은 다음달 3일 오후 6시30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묵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뒤틀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승학수정
061-461-1800
H. 010-3631-0372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아이브

동나무 독채형객실	편안드롭다운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스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골프, 롯데스카이힐스,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다.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정상코스 15분, 성관악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한 입지(다. 차량이동시간임)
소풍의 편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다. 차량이동시간임)
알리바이먼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객실단. 성수기 - 춘성수기 - 연휴기간 제외)
렌트카 90% 할인	별라 15평 동나무주택 11박 + kb or vf소나타 24시간 78,900원(비수기 주중 기준)
단체수요 시설안내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CE가능, 8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완벽,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완벽, 조·중·석식가능